학부(과)	항공교통물류학부	*학번*	2022○○○○○○	*성명*	이○○
제목	대학생활의 시작은 ‘학습’의 정의부터 다시				

○ 에세이 작성 동기(추천 이유 등)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 옆에 존재하지만, 우리 생활의 대부분은 원래대로 돌아왔다. 우리 학교의 경우 1학기부터 대면 수업을 하여 올해 신입생이었던 나는 대학생활의 거의 모든 것을 누렸다. 우리 22학번은 비교적 선배들의 도움을 많이 받은 학번이긴 하다. 하지만 20학번부터 22학번까지 모두가 대면수업은 처음이었기에, 선배들의 조언이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때문에 나는 내년의 신입생들이 경험하게 될 것들과 가장 ‘유사’한 경험을 ‘최근’에 한 선배로서, 좀 더 현실적인 조언을 해준다는 생각으로 공모전에 참가하게 되었다.

또한, 학습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 전, 나는 ‘학습’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 보고 싶다. 고등학교 입시를 하는 동안 우리에게 학습이란 ‘대입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대학교 진학 후, 우리는 어떤 것을 ’학습‘이라고 여기고 있을까?

대학생이 된 우리는 더 많은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자유의 또 다른 말은 책임’인 법. 고등학교 때는 학교 혹은 학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활동, 정보를 챙겨줬지만 더 이상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 수행해야한다. 우리가 먼저 공모전, 대회, 학술제, 간담회 등을 찾아 나서고, 정보를 얻어야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학교생활을 하며 진로관련활동(취업준비라고 하기에는 새내기들에게 아직 너무 이르니까..) 또한 해야 하는데, 나는 이것도 학습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나는 ‘학습’이란 오로지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성적을 내는 것 일 뿐이라는 인식을 깨고 싶은 마음에 공모전에 참가하였다.

○ 학습법 등 Tip 세부 내용(실제 학습법 내용, 적용 사례 등)

앞서 말했듯이, 나는 ‘학습’에는 시험을 보고 좋은 성적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로에 대한 활동 또한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시험용 학습법에 대해서는 ‘평소에 공부하세요’, ‘수업을 열심히 들으세요’와 같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각각 말 그대로 ‘시험을 잘 보기 위한’ 나만의 현실적인 행동요령을 위주로. 진로용 경험 학습법에 대해서는 새내기들에게 도움 될 만한 ‘학교생활 팁’을 위주로 이야기할 것이다.

#. 시험용 학습 (“ALL FOR EXAM”)

1, 시험공부를 위한 준비

꾸준한 공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수업 끝나고 바로 복습을 하더라도 며칠 뒤 까먹는 것은 똑같다. 매일 매일 같은 내용을 본다면 기억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강의를 수강하며 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도 해야 하는 대학생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때문에 평소에 나는 시험 준비 기간 동안 내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공부 자료’를 만든다. 짧은 기간 안에 많은 내용을 공부해야하는 상황에서, 교수님의 강의 자료를 바탕으로 내 스타일에 맞춰 정리한 자료를 보고 공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수학과목의 경우 필요한 개념 및 정의, 증명을 한곳에 정리하여 공부하다가 찾아보기 쉽도록 한다. 암기과목의 경우 내가 외우

기에 최적화된 형식으로 정리한다. 이 형식은 크게 '주제', '항목', '항목 개수'로 구성된다. 이러한 구성은 나중에 공부할 때 이 항목은 어느 주제에 관한 것이며, 이 주제에 관한 것은 몇 개 있는지를 확인하고 내가 무엇을 외우지 못했는지, 무엇을 더 외워야하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용이하다.

2. 시험공부

시험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에, 나는 오직 '형광펜'과 'A4'용지 만을 이용해서 공부한다. 우선, 내가 평소에 준비해놓은 '공부자료'를 프린트한다.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하는지에 대해 파악한다는 생각으로 읽다보면, 내가 직접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스쳐지나갔던 내용들이 조금씩 기억나기 시작한다. 중간에 이해 자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나온다면 파란색 형광펜을 칠해두고,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한다. 그 다음, A4용지에 내가 기억하는 모든 것을 적은 후에 공부자료와 비교하며 내가 완벽하게 외운 부분은 회색 형광펜을 칠한다. 검은 색 글씨에 회색을 덧씌워 어둡게 만들며 더 이상 그 부분이 내 눈에 걸리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잘 외워지지 않는 부분은 보라색 형광펜을 사용하여 표시해두고 집중적으로 외운다.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다보면, 내가 만든 공부자료의 모든 글씨 위에 회색 형광펜이 칠해져 있게 된다. 그럼 나는 그것을 다 외운 것이다. (물론 중간에 까먹은 부분은 없는지 수시로 확인해야겠지만)

3. 시험 기간 중

나는 시험용 학습과 진로용 학습을 나눠 생각할 정도로, 시험용 학습은 오직 시험만을 위해 불태운다. 때문에 시험을 보는 기간 중에는 나의 공부량과 학습 정도가 만족될 때까지 공부를 멈추지 않는다. 미리 꾸준히 공부를 했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시험 직전 까지 시험에 대한 준비가 미흡할 수도 있는 법이다. 이때 컨디션 조절? 해당 과목에 대한 준비가 다 되지 않았는데 컨디션만 좋으면 뭐하겠는가. 나는 컨디션은 자신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컨디션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완벽한 시험준비를 바탕으로 한 자신감이 필요하다. 시험 보고 나서 '좀만 더 열심히 할걸..'하는 후회 자체를 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내가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공부를 멈추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시험을 보며, 내가 습득한 모든 것을 쏟아낸다.

4. 시험 후

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배운 내용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본 시험이 중간고사라면 교수님의 문제 스타일을 정리한다. 또한 나의 필기와 시험문제를 비교해 본다. 교수님께서는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어떻게든 강조해주신다. 내가 받은 시그널이 정확했는지, 교수님은 주로 어떻게 시그널을 보내시는지 등을 검토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기말고사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 지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내가 본 시험이 기말고사라면 시험이 끝난 후 내가 만든 공부자료 및 시험 후기들을 깔끔히 정리한다. 행여 내 지인이나 후배가 내가 수강한 과목을 들을 경우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 공부를 했으니, 이번엔 나도 돕자는 취지이다. :)

#. 진로용 경험 학습 ("JUST DO EVERYTHING")

1. 학교를 이용하자.

우리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학생역량관리시스템에 올라오고, 종종 학부 공지사항에도 올라온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진로'와 관련된 것이다. 우리 학교 '대학 일자리 센터'에서는 자소서 작성 및 면접 연습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및 현직자분들의 특강 등을 진행한다. 이런 기회를 적절히 활용하여 각자의 진로에 맞는 정보 및 지식을 습득하자.

두 번째는 '공부'와 관련된 것이다. 주로 교수학습센터 또는 연구 협력처에서 진행하는데, 오로지 '교과 공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알아두면 좋을 법률 또는 컴퓨터 활용법 등에 대한 특강도 있다. 나의 경우 교수학습센터에서 진행하는 기초역량증진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유니스터디 인강을 들으며 학업 면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세 번째는 새내기 지원센터 및 학생생활 상담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다. 이곳에서는 종종 다양한 성격 검사를 하는데, 이는 자신의 성격을 수치화하여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이해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진로 설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

2. 배운 것을 이용하자.

모두들 학교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배우며 '이걸 왜 배우지?'싶은 과목이 하나씩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수님들의 선택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 다른 과목을 배우거나 비교과 활동을 할 때 배운 내용을 접목시키는 연습을 해보자. 나의 경우 이번 창업 아이디어 경진 대회에서, 경영학 시간에 배운 '시장분석법'과 교통학 시간에 배운 'LOS' 시스템을 활용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배운 내용을 다른 분야에 활용하고 적용하는 것을 익히면, 결과물의 퀄리티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질 것이다. 또한 앞으로 직면하게 될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생각의 폭 또한 넓어질 것이다.

3. 하고 싶은 것을 하자. 아니다, 일단 다 해!

나는 현재 관심을 갖고 있던 타과의 전공과목을 신청하여 수강 중이다. 다른 과의 수업이라고 해서 듣지 말라는 법은 없다. 내가 관심이 있다면, 용기내서 듣고 싶은 강의를 수강하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해보자. 이게 진정한 대학생 아니겠는가. 대학생의 자유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다. 또한 1학년은 많이 여유로운 시기이다. 전공지식이 없으니 나중에 하겠다는 생각은 말고, 일단 뭐든 하다보면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전공과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1학년인 나는 항공교통물류학부 학술제에 나갈 수 없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선배들과 팀을 이루어 학술제에 나가며 선배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감사하게도 수상까지 할 수 있었다. 이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수상을 하지 못하더라도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 학습방법을 통한 능력향상 정도 또는 기타 영향

나의 시험만을 위한 '시험용 학습'은 주입식 교육의 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시험은 학습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나의 집중적이고 집요한 공부는 오히려 해당 지식을 더 오래 기억하고,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시험을 목적으로 공부하는 것' 자체가 '지식 습득의 수단'이 된 것이다. 나는 이러한 학습법을 통해 4점대의 만족할 만한 성적을 얻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통해 내 전공 및 진로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됐다. 좋은 성적과 다양한 경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것 같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 최종 소감

몇 사람들은 나의 공부법이 벼락치기 공부법이라고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꾸준히 공부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 바쁜 대학생활 속에서, 이렇게라도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평소에 공부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포기하고 재수강을 기약할 것이 아니라, 평소 '시험기간의 나'를 위한 준비 정도는 미리 해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해진 분량 제한 내에서 '시험'학습법, '경험'학습법 두 가지에 대해 이야기 하느라 더 자세하게 작성하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사람들이 나의 글을 읽고 '학습은 오로지 앉아서 하는 공부만을 뜻하는 것' 이라는 고정된 생각을 깰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 사진 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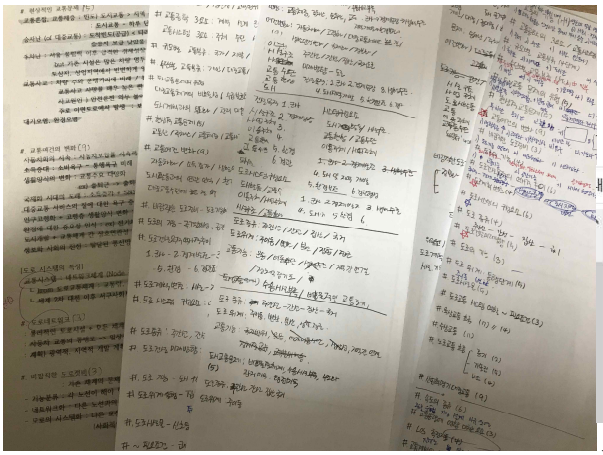

그림 1 공부 자료 및 공부 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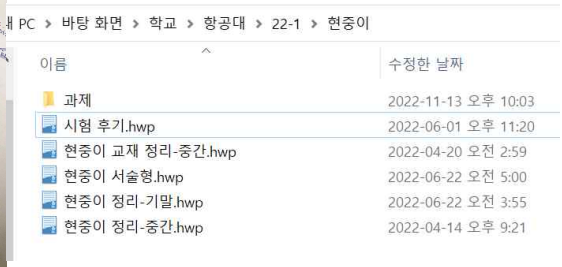

그림 2 시험자료 및 시험 후기 파일

그림 3 기초학습역량강화프로그램 신청화면